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2000억대 사업 백지화 주차타워 우선 짓기로

광주시, 서희컨소시에엄

개발사업 협약 종료 통보

광주시가 지지부진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설립 사업과 관련 협약을 종료한다고 민간사업자인 서희컨소시에엄에 통보했다. 진전이 없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일단 연기하고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주차타워를 짓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서희컨소시에엄 측에 지난 2013년 7월 체결한 협약의 종료와 함께 우선협상자의 지위 역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공모제안 요청서 상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로 종료됐고,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협약서에 서도 2017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희컨소시에엄은 공사비 1600억원 등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해 환승·판매·업무·문화·자동차시설 등으로 구성된 부지 면적 1만7000㎡ 연면적 19만324㎡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과의 부지 매각 협상, 이후에는 환승주차장 임대료 협상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송정역 이용승객은 폭발적으로 증가, 주차장 부족 문제가 부상했으나 시는 물론 서희컨소시에엄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희컨소시에엄에 개발사업 진척 방안을 2월 1일까지 제시할 것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개발사업 종료에 대한 의견을 12일까지 반드시 회신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한 안에 의견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 성격이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전인 2015년 4월 이전에는 하루 평균 4422명(주말 5913명)에 불과했던 광주송정역 이용객 수는 이후 1만3614명(1만616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12월 9일 SRT가 영업을 시작하자 1만8762명(2만2504명)으로 급증, 교통 혼잡, 주차장 부족, 유동인구를 위한 편의시설 미흡 등이 현안이 됐다.

이용객과 시민의 요구가 빚발쳤으나 서희컨소시에엄은 코레일과 환승주차장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코레일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서희컨소시에엄의 설명이다.

서희컨소시에엄 관계자는 “현재 391면의 환승주차장을 매각하고도 추가로 현재 발생하는 주차수입의 30년간 보장을 요구한 것은 무리”라며 “여러차례 절충안을 냈지만 코레일이 거부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시는 우선 코레일이 300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차빌딩과 편의시설 일부가 포함된 연면적 4만3500㎡의 주차타워를 짓고 복합환승센터는 추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1500면의 주차면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 설계비(20억원)를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코레일도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환승주차장 규모확대, 환승통로(skywalk) 개설, 택시 대기공간(set back) 추가설치 등 환승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토부, 코레일과 자체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남북 정상회담 물꼬…북미대화 변수

북 김영정 특사, 문대통령에 김정은 친서 전달…“평양 방문 요청”

문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 시키자…미국과 대화 적극 나서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여동생 김영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함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국면의 해법이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예방한 김영정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親書)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필요한데, 남북관계로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전체 환경과 분위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북한 대표단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 방한으로 평창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특사는 파란색 파일 속에 있던 친서를 본 다음 문 대통령에게 전달해드렸고, 대통령은 혼자서 보시고는 접어서 부속실장에게 넘겼다”며 “그 뒤 김 특사가 구두로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다. 친서 내용에 초청의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잡은 남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김영정 북한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만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 4위 목표 순항…쇼트트랙 임효준 첫 금

남북 손잡고 평화올림픽 열어

‘지구촌 겨울 대축제’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9일 평창올림픽 스타다움에서 개회식을 열고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대회 개최와 함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면들이 쏟아지고 있다.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라는 주제로 펼쳐진 개회식부터 감동의 무대였다. 이날 가장 마지막인 91번째로 입장한 남북한 선수

단은 한반도기를 맞잡은 한국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북한 수비수 황충금을 따라 경기장을 돌며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관람석에서도 남북은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날 전용기편으로 방남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영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관람석에 나란히 앉아 ‘평화 올림픽’을 보아줬다. 이들은 기립 박수로 남북한 선수단을 맞이하며 개회식

의 감동을 더했다.

개회식의 대미는 ‘피겨 여왕’ 김연아가 장식했다. 흰색드레스 차림으로 성화대 앞 빙판에서 연기를 펼친 김연아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박종아(한국)와 정수현(북한)이 넘겨준 성화를 받아 평창 하늘을 밝히며 개회식을 빛냈다.

본격적인 대회 일정이 시작된 10일에는 쇼트트랙의 금빛 질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남자 1500m 결승에 나선 임효준(한국제대)은 2분10초485의 올림픽 신

기록으로 한국에 첫 금을 선물했다.

쇼트트랙 여자 계주팀은 경기 도중 막내 이유빈(서현고)이 넘어졌지만, 4분06초387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세계를 열광시켰다. 북한 응원단도 관중석의 금메달리스트였다. 이들은 ‘우리는 하나다’를 연호하며 파도타기 응원을 주도하기도 하는 등 평창 올림픽의 특별한 조연이 됐다.

한편, 12일에는 노선영(부산 콜핑)이 골육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의 동생 노진규를 기리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경기에 출전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남북 정상회담 언제 열릴까 ▶ 2면
평창을 빛낸 스타들 ▶ 18·19면
개회식·북한 예술단 화보 ▶ 20면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 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게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 E R 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입실: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